

“정겨웠던 명절…고향의 정 안고 다시 일상으로”

SOCIETY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7일간 추석 연휴 종료…송정역·광천터미널 ‘복적’

버스·기차표 대부분 매진…아쉬움 가득한 귀경길

“정겨웠던 명절도 이제 끝이네요. 오랜만에 어른들에게 잔소리를 들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를 뒤로 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귀경행렬’로 광주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 크게 붐볐다.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역에는 긴 연휴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객과 가족을 배웅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송정역 앞 도로를 가족을 배웅하기 위한 차량들로 한때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긴 연휴 기간으로 귀경일이 분산됐음에도 이날 대부분 기차표는 모두 매진된 상태였다.

일부 귀경객은 취소표를 구하지 못해 자리를 떠나는 모습도 보였다. 역사로 향하는 귀경객들의 양산에는 명절 선물과 가족이 챙겨준 음식들로 가득했다.

배웅하러 나온 가족들은 손수 만든 반찬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건네주며 ‘밥 잘 챙겨 먹어’, ‘도착하면 연락해’ 등 마지막 안부 인사를 나눴다.

역사 내에는 열차시간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승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내 서울행 열차의 탑승을 알리는 안내가 나오자 시민들은 하나둘씩 승차장으로 향했다.

7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고향에 있는 가족을 뒤로하고 열차에 오르는 이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역력했다.

열차가 서서히 역에 진입하자 몇몇 가족들은 섭섭함에 진한 포옹을 나누고, 잡고 있던 손을 다시 한 번 쥐며 놓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귀경객들이 하나둘 열차에 오르기 시작하자 가족들은 ‘조심히 가’라는 말과 함께 연신 손을 흔들며 아쉬움을 달랬다.

한쪽에서는 60대 부부가 열차 창문 사이로 갓 걸음을 땀 손주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애절한 모습도 보였다.

일부 가족은 열차가 출발한 뒤에도 자리를 지키며 눈을 떼지 못했다.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딸을 배웅하러 온 50대 최씨 부부는 7일간 이어진 추석 연휴가 짧게 느껴졌는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연휴 기간이 짧게 느껴졌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9일 오전 광주 송정역에서 고향의 넋직한 정을 가슴에 담은 귀경객이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만 오랜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쉬움에 남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도 귀경 인파로 북적였다.

고객 대기실에는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가득 찼고, 역내 식당에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행 버스 탑승을 알리는 목소리에

귀경객들은 승차함으로 향했다. 배웅길에 나선 이들은 가족이 버스에 착석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짐칸에 넣은 물건 중 빠진 것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80대 노모는 60대 자녀가 여전히 아이처럼 걱정되는지 두 손을 잡은 채 거동이 힘든 몸을 이끌고 배웅에 나섰다.

딸 김모씨는 “지난 설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아왔다. 몸도 안 좋으신데 굳이 배웅에 나서겠다고 해 실랑이도 있었지만” 며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보다.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고 명절이 아니더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한글날’ 훼손된 채 방치된 태극기 ‘눈살’

광산구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

관리 소홀…수일 째 그대로

광주지역 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양된 태극기가 훼손된 상태로 수일 째 방치돼 있어 반목을 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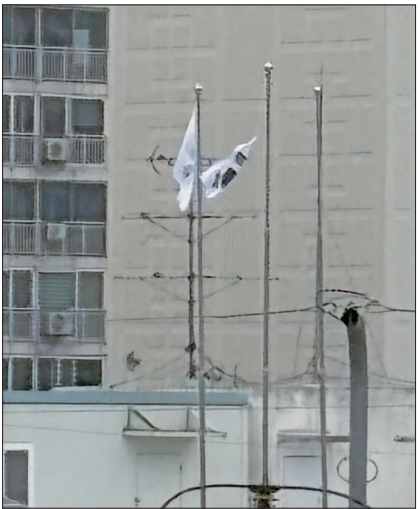
특히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는 고려인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어 명절 연휴를 맞아 방문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579돌 한글날’인 9일 광주 광산구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설치된 3개의 게양대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중 태극기는 육안으로 봐도 훼손 정도가 심한 채 한쪽 끈에 의지한 상태로 수일째 너털거리며 팔려있고 있었다. 비와 바람이 심했던 지난 7~8일에는 곧 떨어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24시간 매일 탈 수 있는 태극기는 국가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 주체인 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를 방치한 것이다.

특히 해당 동에는 광산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고려인마을이 위치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지역 특성성이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 국기게양대의 모습.

있는 곳이기도 하다.

주민 A씨는 “혹시 관광객이 훼손된 태극기를 볼까 부끄럽다.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며 “머칠째 방치돼 있다. 명절 연휴라고는 하지만 눈구기는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한글날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민국 국기법 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 1심 판결 2건…피해자 150명

법무부는 9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6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특별자치도, 경남 등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

권침해 사건이다”면서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정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한편 대한정소년개척단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전남 9월 강수·뇌전일수 ‘역대 최다’

대기 불안정 영향

올해 9월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강수 일수와 천둥·번개 횟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9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9월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린 일수는 15.9일

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 2007년 15.4일보다 0.5일 많고, 평년 9.1일보다 6.8일 늘어난 수준이다.

기상청은 9월 북태평양고기압이 주로 서쪽으로 확장해 우리나라 남쪽에 머문 가운데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쪽으로 상층 찬 기압골이 자주 발달하면서 비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잦은 강수 속 뇌전일수도 역대 가장 많

았다. 9월 광주·전남지역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린 일수는 5.7일로 평년 1.2일보다 4.6일 증가했다.

특히 9월 뇌전일수는 올해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지난 7월과 8월 뇌전일수는 각각 2.7일로 나타났다.

이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그 사이에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했고, 대기불안정에 의해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

오늘의 날씨

☀️	예보 06:34	☁️	달름 19:58
☀️	예전 18:04	☁️	달름 10:06



광주	☀️	17~27
목포	☀️	18~26
여수	☀️	18~25
순천	☀️	17~26
구례	☀️	15~27
광주	☀️	17~26
해남	☀️	17~26
임도	☀️	19~27
전남	☀️	19~25
고흥	☀️	16~27
진도	☀️	17~26

목포	미물(고)	03:55 / 16:38
	쌀물(저)	09:05 / 21:38
여수	미물(고)	11:03 / 23:05
	쌀물(저)	04:28 / 17:00

담배 공초에…주택 ‘화르륵’

만년필 ○…전남 곡성의 한 주택에서 담배 공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

9일 곡성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 곡성군 석곡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돼,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7대, 소방대원 2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오후 7시 10분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주택이 전소돼 소방추산 624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다만, 화재 당시 거주민 1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거주민의 담배공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산 윤남파크골프장 조성

9홀 규모로 내년 2월 준공

광주 광산구는 내년 남동 604-1번지 일원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광산구는 고려화에 따른 여가생활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파크골프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남파크골프장은 영산강 내 윤남 생활체육시설단지 인근에 9홀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 5억9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윤남파크골프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세대 간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jh4415@gwangnam.co.kr

추석 연휴 광주 사건사고 잠잠…‘평온한 명절’

귀성객 234만·귀경객 204만명…설 대비 129만명 증가

시, 종합상황실 운영…안전·의료·교통 시민 불편 해소

광주지역은 7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명절을 보냈다.

광주시는 9일 낮 12시 기준으로 연휴기간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공항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234만명의 귀성객이 광주를 방문했고, 204만명의 귀경객이 광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올해 설보다 129

만명이 증가한 438만명이 광주를 오갔으며, 일평균 11만명이 증가했다.

광주시는 특히 길었던 이번 추석 연휴기간 호우,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9일 낮 12시 기준 화재 7건, 교통사고 56건, 구조·구급 1170건이 발생했고, 1건의 사망사건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미한 사고에 그쳤다.

이는 각종 구조·구급 신고에 따른

119구급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휴기간에 자살원위자 모노레일 차량 충돌을 충분히 하지 못한 탓에 운행이 30분간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휴기간 29만명의 성묘객이 시립묘지(망월묘지, 영락공원)를 찾은 가운데 5일부터 7일까지 성묘객 17만명이 몰렸지만, 지원15번, 용전86번, 518번 3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증차 운행하고 경찰, 공무원, 모범운전자회원 등 100여 명이 현장에 배치돼 성묘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무등산 정

상 개장에 맞춰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원효사행 시내버스 1187번을 평소보다 29회 증편해 총 99회 운행하고, 차량 혼잡구간인 충장사·원효사 주차장 및 윤림중학교~증심사 입구에서 불법 주차차를 통제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썼다.

추석 연휴를 맞아 광주를 찾아오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캠페인’을 광주버스종합터미널, 광주송정역, 무등산에서 진행했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 21곳과 응급의료시설 5곳의 24시간 진료를 통해 연휴기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 1656곳, 문 여는 약국 1056곳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지난 설 대비 공공심야 및 달빛어린이병원은 4개소(광주기독병원, 광주센트럴병원, 아이맘아동병원, 미래아동병원)로 확대·운영되면서 아이와 부모가 더 안심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상황실, 급수종합상황실, 연료수급상황실, 청소기동처리반 등을 연휴기간 운영해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광주시는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추석 명절 시민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해 3개 분야 10개 항목 48개 과제를 추진했고, 연휴기간 7개 분야(종합상황, 성묘·의료, 교통, 환경·청소, 시민안전, 소방, 급수) 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